일 주 문



평창월정사 탑돌이

정념 평창 월정사 주지 스님은 8월 12일 오후 7시 월정사 팔각9층석탑 앞에서 '2016 평창월정사탑돌이'를 봉행한다.



추억의 산사영화제

호성 의성 고운사 주지 스님은 8월 17일 오후 2시 화엄문화템플관에서 '옛 추억의 설렘을 찾아가는 산사영화제'를 개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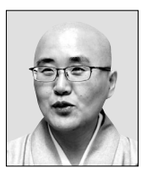
百高座 경율론 대설법회

실상 대구 법왕사 주지 스님은 10월 8일까지 매일 오전 11시 '제32회 백고좌 경율론 삼장 대설법회'를 봉행한다.



어린이 연합불교학교

성행 (사)동련 이사장 스님은 8월 6~8일 순천 송광사서 '2016년 전국어린이 연합불교학교'를 개최한다.



어린이 영어 담마캠프

자우 비로자나국제선원장 스님은 8월 4~7일 속리산 법주사서 '제10회 어린이 영어 담마캠프'를 개최한다.

북한이탈주민 '바리스타 되기'

한솔福, '디자(自)인 아카데미' 개강



한솔종합사회복지관(관장 가섭)은 7월 23일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바리스타 교육 프로그램 '디자(自)인 아카데미'를 개강했다. 분당경찰서 보안협력위원회 협력으로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총 10회 과정으로 진행되며, 바리스타 2급 자격증 취득을 통한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에 의의가 있다.

한솔종합사회복지관 측은 "일반적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은 장기간의 탈북과정서 문화적 · 정신적으로 혼란을 겪는다. 또한 남한 입국 후에도 취업의 문턱에 부딪히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다"며 "이를 해소하고 자진감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스스로 삶을 디자인 한다'는 주제로 바리스타 교육을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관장 가섭 스님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대한민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려는 북한이탈주민들을 격려한다"며 "디자인 아카데미 참여를 통해 희망을 찾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박아름 기자**



"신해행증 일념으로 새 신행문화 개척"

창립 10주년 맞은 조계사 불교대학 총동문회

Interview

조재연 동문회장 · 김경숙 총무부장

"교육과 신행, 봉사가 함께 하는 동문문화가 불교계에 확산되기를 기원합니다. 부처님 법을 믿고, 법을 알고, 행을 닦는 신해행증(信解行證) 일념으로 끊임없이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불자인재 양성에 매진하고 있는 조계사 불교대학 총동문회가 창립 10주년을 맞았다. 조계사 불교대학 동문 300여 명은 7월 22일 조계사 대웅전서 창립기념법회를 열고 새 신행문화 개척을 발원했다.

조재연(61 · 사진 오른쪽) 조계사 불교대학 총동문회장은 7월 27일 조계사 불교대학 동문회 사무실에서 만난 자리에서 "조계사 불교대학 총동문회 10주년은 신행조직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보통 다른 사찰의 경우 불교대학 출신 동문들이 따로 뭉치기가 쉽지 않다. 동문조직이 활성화돼있지 않아 신도회 차원서 불교대학 출신들을 관리한다. 하지만 조계사 불교대학의 경우 불교대학 건물 내 사무실을 두고 회원 관리 등을 직접 하고 있다.

조계사 불교대학 총동문회가 다른 사찰의 동문회와 다른 점은 사찰 내 동문회만의 활동영역이 보장된다는 점이다.

매년 조계사 불교대학을 졸업하는 인원은 150여 명 수준이지만 모두가 동문회 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다. 졸업 후 사찰 소임이 없는 이들은 낮은 관심을 보일 수밖에 없다.

조계사 불교대학 총동문회는 기획부, 교육부, 문화부, 포교부, 신행부, 봉사부, 재무부, 홍보부 등 총 8개 부서로 구성돼있으며 소외되는 이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 불교대학 졸업 기수별로 부서장이 배정돼있다. 고문 10명을 포함해 전체 임원 수가 100여 명에 달한다.

조재연 동문회장은 이날 사찰 내 신도들의 역할이 있어야 사찰도 발전한다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조계사 불교대학은 1989년 여성불교 교양대학으로 출발했다. 당시에는 1년제 교양대학이어서 소속감이 낮고, 동문 활동이 미미했다. 1992년 2년제 개편 이후 동문회 활동 참여가 급격히 늘었다"고 동문회 역사를 설명했다. 이어 조 회장은 "사실 1990년대 초부터 동문조직이 있었지만 사찰 측의 인정을 받지 못했다. 2년제로 변경되고 인원 증가와 조직력 확대로 사찰과 공조체제가 굳어졌다. 96년을 정식 출범으로 보는 이유가 그것"이라고 말했다. 조 회장은 동문회 특유의 조직력으로 불사 등 사찰활동에 기여해 이제는 스님들도 반긴다고 덧붙였다.

1996년 정식출범 후 조직 확장
8개 부서두고 다양한 활동 전개
"사찰서의 역할이 동문 구심점"

조 회장은 "현재 조계사에서 의무교육을 비롯해 불교대학 2년 과정, 불교대학원 2년 과정, 선림원 2년 과정 등 총 7년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지속 교육 형태를 띠는 것도 동문회 성공요인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날 함께 자리한 김경숙(52 · 사진 왼쪽) 총무기획부장은 "대웅전 청소와 기도 집전 및 봉사 등 신도기본업무 외에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소개했다.

구체적으로 총동문회는 8개 부서가 각기 다른 활동을 전개한다. 문화부의 경우 산악활동과 체육대회 개최, 포교부는 찬불가 합창동아리 운영, 교육부는 포교사 고시반 운영 및 특강 진행, 홍보부는 동문지 편찬 등 업무를 진행한다.

김경숙 부장은 "홍보부의 경우 미술학원을 운영하는 분 등 관련자가 PPT 제작과 카페 운영을 하는 등 역량에 맞춰 배정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매달 한 차례 '53선지식 초청특강'을 진행 중이다. 동문회 내 53선지식 운영위원회가 구성된 상태로 강사 섭외와 프로그램 구성, 영상 녹화 및 보도 등을 모두 진행한다. 지금까지 명법 스님, 전현수 박사, 박광서 교수 등이 강연에 나섰다.

조재연 동문회장은 "3년 여 기간이 남은 53선지식 특강을 비롯해 신행과 생활이 하나가 되는 기회를 마련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해방촌 재생활성화, 동국대가 나선다

동국대, 7월 25일 서울시와 해방촌 재생 MOU

해방촌 도시 재생활성화를 위해 동국대가 나선다.

동국대(총장 보광)는 7월 25일 해방촌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서울시와 해방촌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 양 기관은 서울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의 동반자로서 상호교류를 통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연계형 교육프로그램(캡스톤디자인) 운영 △지역사회를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학습 멘토링 및 현장실습, 봉사활동을 통한 상생협력 △동아리와 연계한 지역축제 활성화 △해방촌 군인아파트 활용을 위한 공동연구 진행 등이 세부사업으로 진행된다.

이번 프로젝트의 책임자인 한광야 동국대 건축공학부 교수는 해방촌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신흥시장을 '아트마켓'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총장 보광 스님은 "해방촌은 남산을 사이에 두고 동국대와 가깝게 있는 이웃마을"이라며 "대학 본연의 목적인 교육을 통한 우수한 인재양성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지역사회와 상생하기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최근 해방촌은 젊은이들 사이에서 '뜨는 동네'가 됐지만 여전히 노후 저층주거지와 신흥시장은 해결해야 할 숙제"라며 "동국대 등 유관기관과 협조를 통해 해방촌 주민이 원하는 도시재생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제3차 아시아 불교문화교류대회 성료

세계불교문화교류연맹, 7월 17~19일 태국 치앙마이서

(사)세계불교문화교류연맹(총재 대원, 中육조사 방장)은 7월 17~19일 태국 치앙마이서 중국 광동성 육조사 주관으로 '제3차 아시아 불교문화교류대회'를 개최했다.〈사진〉

40여 개국 5천여 불교지도자 및 신도들이 참가한 이번 축제에 한국대표단은 천태종 총무원장 춘광 스님을 비롯한 20여 명이 참가했다.

이 행사는 2009년 5월 21일 서울 올림픽공원서 열린 '한-중 불교교류 제2회 한국 육조제'서 한국과 중국 측 불교지도자들이 인연을 맺은 것이 계기가 됐다. 이후 2011년 캄보디아서 1차 대회를, 2013년 스리랑카서 2차 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현재 세계불교문화교류연맹은 전 세계 수십여 곳에 지부를 두고 있다. 본부는 홍콩에 있으며, 한국지부는 대구 수성구에 있다. 한국지부 총재는 부산 태종사 조실 도성 스님이 맡고 있다.

한편 세계불교문화교류연맹 한국지부는 육조 혜능대사의 기일을 맞아 오는 9월 2일 4박5일 일정으로 광효사, 육조사를 참배하는 제17회 전법기행을 개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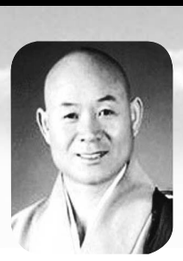
전법기행은 조동종 25세 · 위양종 10세 법맥을 갖고 있는 육조사 방장 대원 스님으로부터 보살계와 아사리계를 전수받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가사와 장삼, 승복, 신발, 전법증서 등이 제공된다. 이외에도 광효사와 육조 혜능대사 출가사찰, 대불사, 달마사 등을 순례한다.

전법제자에게는 연맹 정회원 자격이 부여되며, 육조사 산하 22개 대형사찰에서 수행할 수 있는 특전이 주어진다. 특히 중국유수 대학교와 연계된 승가과정 4년제 장학과정으로 유학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 **윤호섭 기자**

세계에서 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

2016년도 남경 의대(중의학) 학생 모집



혜인스님 한국총장

조기 유학생 모집
어학단기반 모집

- 초 6년 ~ 고3 재학
-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c.co.kr

한국 유학생 중국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❶ 특차모집(남경중의학대학)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100명	• 최종학력증명 1부 • 최종성적증명 1부 • 입학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0부
석사과정	3년	50명	
박사과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경제,경영,무역,식품,금융 등

❷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주지스님 추천자

❸ 학교소개

▶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3,제약공장,교육병원12,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군입대 연기 가능
▶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 학자금 대출 가능
▶ 서울시내 대학 편입 가능
▶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❹ 전형방법 및 모집기간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모집기간 : 2016년 8월 22일까지 수시전형

❺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교부 : 한국 사무처 –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불교조계종 교학과에서 직접 교부 (지방은 우편으로 배부 가능) www.njutcm.co.kr
▶ 접수 : 불교조계종 한국분교(빠른 접수 가능)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논현동 2-13 2층)
▶ 제출서류 특별전형 : 최종학력증명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 기 타 어학연수 및 조기유학에 관한 문의는 불교조계종 국제교류처(02-511-1080)으로 문의 바람.

❻ 학비(등록비 및 보험료 포함)

▶ 학사 과정 : 매년 25,800위안
▶ 석사 과정 : 매년 33,800위안
▶ 박사 과정 : 매년 41,800위안

■ 남경중의약대학(南京中醫藥大學)

南京市仙林大道138號(210023)
138 Xianlin Rd., Nanjing 210023, P.R.China
E-mai l: overseas@njucm.edu.cn
Website : www.njucm.edu.cn

■ 한국상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교육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
▶ 교학처 : (02)511-2026, 2027
Fax (02)511-2028
▶ 총장실 : (02)511-1080
http://www.njutcm.co.kr